

**바노이 (Robert Vannoy) , 주요 선지자, 강의 25**

**에스겔 - 역사적 배경과 구조, 티레**

에스겔

A. 서문

에스겔서를 보면 개요의 A.가 “서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스겔서는 구약성서에서 등한시되는 책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사야와 다니엘, 그리고 아마도 4대 선지자 중 예레미야도 에스겔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에스겔서가 다른 책들보다 이 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 배경에 대한 지식이 더 필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상징적인 내용이 너무 많아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첫 장을 보는 순간 상징적인 소재에 단번에 압도된다. 여러분은 바퀴 안에 바퀴가 달린 하나님의 보좌 수레의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적 경험은 우리 대부분이 지금까지 경험해 본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것입니다. 내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내용을 읽고 책을 끝까지 읽으려고 할 때 더 이상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책을 본다면 대부분 책의 마지막 부분에 있을 것입니다

. 34장부터 39장까지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40장부터 48장은 미래의 성전인 에스겔의 성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히 어떻게 해석되는지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의 처음 2/3 부분에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 책의 처음 3분의 2는 에스겔 자신의 상황을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책의 후반부에 이르면 당신은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책 작업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예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에스겔 1:2 - 날짜와 연대기 이 책은 연대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구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 그 달의 다섯째 날은 다섯째 해였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혀 간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바벨론 땅 그발 강 가 에서 부시 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 에게 임하니라 거기서 여호와의 손이 그 위에 있더라 .” 그리하여 에스겔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데,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5년째 되는 달 초닷새에 이 환상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날짜는 BC 593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의 통치 날짜를 알고 있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되는 해는 593년입니다. 첫 번째 구절에도

연대순으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다소 비밀스러운 진술이 있지만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 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니 ”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30년, 4월, 5일인데, 30년이 무엇인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올해로 서른 살이고 그의 나이는 서른 살이 라고 추측하는 것이 타당하다 . 아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스겔의 나이가 기원전 593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구절에서 그 날짜가 593년으로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2. 역사적 배경 여호야긴(BC 597년)부터 성전 멸망(BC 586년) 이제,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에서 배운 것과 관련하여 BC 593년 날짜의 두 번째 구절을 역사적 배경까지 취한다면, 그것은 배경을 제공합니다. 책을 위해. 그것에 대해 잠시 동안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기원전 597년에 느부갓네살은 불과 3개월만 통치한 젊은 왕 여호야긴을 포함하여 수많은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런 다음 느부갓네살은 시드기야를 유다의 왕좌에 앉혔습니다.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 이하에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 그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방백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 성을 에워싸니 그 방백들이 에워싸고 있는 동안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올라왔더라. 유다 왕 여호야긴과 그의 어머니와 신하들과  
 귀족들과 신하들이 다 그에게 항복하였더라. 바벨론 왕 제팔년에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사로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느부갓네살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든 모든 금 기명을 다 가져갔느니라  
 그는 예루살렘 전체를 사로잡아 갔습니다. 모든 관리들과 군인들과  
 모든 장인과 장인들을 모두 합쳐 만 명이었습니다. 그 땅에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그는 또 왕의 어머니와 그의 아내들과  
 신하들과 나라의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바벨론 왕은 또 강하고 전쟁에 적합한 용사 칠천 명과 장인과 기술자  
 천 명을 모두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다. 그는 여호야긴의 숙부 맛  
 다냐를 대신하여 왕을 삼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꾸니라.”  
 그러니까 그것은 기원전 597년이고, 에스겔서 2절에 따르면 여호야긴  
 통치 5년인 593년까지 내려갑니다.

이제 이 일반적인 기간 동안 유다에는 수많은 추방이 있었습니다  
 . 그 중 첫 번째는 당신이 따르는 연대기 에 따라 조금 더 이른 기원전  
 605/6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 열왕기하 24장 1절에 가장 이른

것이 있습니다: “ 여호야김이 통치하는 동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 땅을 침공하였고 여호야김은 3년 동안 그의 종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바꾸어 느부갓네살에게 반역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벨론 사람과 아람 사람과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의 약탈자들을 보내 그를 치게 하셨느니라 ” 등의 말을 했습니다.

기원전 605년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 바빌론으로 갔습니다. 다니엘과 에스겔은 대략 동시대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먼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을 보면 에스겔은 다니엘을 가리킨다 . “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자기의 의로 자기만 구원할 수 있었으리라 ” . 그것은 에스겔 14장 14절이고 14장 20절에는 다니엘에 대한 또 다른 언급이 있습니다. “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도 한 아들도 구원하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딸도 아니고. ’ ” 다니엘서에는 에스겔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에스겔에는 다니엘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스겔서에 언급된 다니엘이 우가리트 자료에서 언급된 다넬 이라는 고대 인물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

그러나 기원전 605년에 당신은 첫 번째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 597년 두 번째 사건 에서는 에스겔이 여호야김과 약 10,000명의

유대인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 그렇다면 물론 예루살렘의 최종 포로수송과 멸망은 기원전 586년, 즉 왕하 25:8-21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지배에 맞서 투쟁하면서 세 번의 일련의 포로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기원전 586년에 이르러 예루살렘은 멸망되고, 마지막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포로되어 첫 번째 성전이 파괴됩니다. 열왕기하 23장 34절을 보면 “ 바로느고가 요시야 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꾸니라” 고 했습니다. ” 23시 34분이에요. 그리고 35절, “ 여호야김은 바로 느고에게 그가 요구하는 은금을 주었더라.” 그렇게 하기 위해 그는 땅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땅 사람들의 평가대로 은과 금을 징수했습니다.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이십오 세라 예루살렘에서 십일 년 동안 다스리니라 .” 열왕기하 24장 1절은 “ 여호야김 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땅에 침입하였으므로 여호야김이 삼년 동안 그의 종이 되었느니라 ” 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충성은 애굽에 조공을 바치는 것에서 바벨론에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 여호야김이 죽었습니다.

여호야긴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열왕기 마지막에 풀려났습니다. 사실, 비록 시드기야가 여호야긴 대신에 왕위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었던 곳은 바로 여기였습니다. 흔히 시드기야를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러한 견해를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여호야킨이 합법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드기야의 통치가 일시적일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여호야킨이 유다로 돌아와 그의 통치를 재개하고 유다가 다시 독립 국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유대 민족이 원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 외세의 불법적인 임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야킨은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합법적인 왕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애국심이 강했습니다.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으로부터 유다의 독립을 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그 감정을 이해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신 에스겔의 임무는 매우 어려운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해야 할 것은 유배 생활이 단지 일시적인 불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끝날 일은 아니지만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간 때는 기원전 597년이고, 첫 번째 장의 환상을 본 때는 기원전 593년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진정한 결정적인 타격이 가해진 기원전 586년 이전입니다. 따라서 에스겔은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하며, 확실히 그의 메시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도 전달됩니다.

에스겔은 유다에게 그들이 다시 침략당할 것이며,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그들의 고토가 완전히 황폐될 것이라고 말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들 대부분이 집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에스겔을 비애국자, 반역자, 협력자로 보는 것입니다.

3. 성전 파괴의 의미 에스겔이 당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당면한 역사적 배경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왕을 포로로 잡았을 때 바벨론의 신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결론짓는 것은 매우 쉬웠습니다. 당시의 통념은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의 신이 더 강력한 신이라는 것이었다. 에스겔과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 만 명의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바벨론 신들의 행렬과 바벨론 신전에서 매우 정교한 예배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바빌로니아의 신인 마르둑(Marduk)이나 또 다른 바빌로니아의 신인 나부(Nabu)의 위대함에 깊은 인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본부, 말하자면 예루살렘과 성전조차 지키지 못하는 신은 그다지 큰 힘도, 의미도 없는 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포로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곧 파괴될 것이며 이는 그의 메시지의 일부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있는 눈에 띄는 것이 거의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이 아마도 첫 번째 장의 이유일 것 같습니다. 1장에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 이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매우 인상적인 그림입니다. 확실히 그 환상은 에스겔 자신도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 4. 에스겔 1:4ff -

여호와 의 영광의 위대함 1장 4절의 일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번쩍이는 번개와 화려한 빛으로 둘러싸인 구름. 불의 중심은 빛나는 금속처럼 보였고 그 불 속에는 네 생물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 모양은 사람의 모양이었는데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를 가졌더라. 그들의 다리는 곧았다. 그들의 발은 송아지 발 같았고 빛난 구리처럼 빛났습니다. 그들의 날개 아래에는 사방에 사람 의 손이 있었습니다. 네 마리 모두 얼굴과 날개가 있었는데, 그 날개들이 서로 닿았습니다. 각자는 곧장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움직일 때 돌지 않았습니다 .”

15절에 보면, “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각 생물 곁에 땅에 바퀴가 있고 그 네 얼굴이 있더라. 바퀴의 생김새와 구조는 이러하니,

감람석처럼 빛나고 네 개가 다 똑같았더라. 각각은 바퀴가 교차하는 바퀴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움직일 때 생물이 직면한 네 방향 중 하나로 이동했습니다.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는 돌지 않았습니다. 그 테는 높고 두려우며 네 테에는 모두 눈이 가득하더라 .”

그 설명은 1장 22절 이하에서 더 이어집니다. “ 생물들의 머리 위에는 궁창처럼 보이고 얼음처럼 빛나고 놀라운 것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궁창 아래에는 그들의 날개가 서로를 향하여 펼쳐져 있었는데, 각각 두 날개가 몸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 생물들이 움직일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큰 물소리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도 같고 군대의 떠들썩함도 같았느니라. 그들은 가만히 서서 날개를 내렸다. 그 때에 그들이 날개를 내리고 서 있을 때 그들의 머리 위 궁창 위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 궁창 위에 남보석으로 된 보좌 같은 것이 있고 그 보좌 위의 형상이 사람의 형상 같더라. 내가 보니 그의 허리 위쪽은 불로 가득 찬 빛나는 금속 같았고 아래쪽은 불 같았습니다. 찬란한 빛이 그를 둘러싸더라 .”

그리고 1장 마지막 절에서 “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무지개가 나타난 것 같으니 그 주위에 광채가 있었고” 라고 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더라. 내가 그것을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었노라 .” 그리고 나서 당신은 “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라는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백성에게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확실히 첫 장에 나오는 여호와의 영광의 위대함에 대한 환상은 에스겔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책에서 이 비전을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가 보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가 바벨론 신들의 영광과 광채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사로잡혀 간 것은 바벨론의 신들이 강해서가 아니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징계하여 그들의 죄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이니라 이것이 그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5.

에스겔서 의 구조        계속해서 “서론” 아래에 있는 책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이 책이 다음과 같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세 장에는 “에스겔의 하나님의 비전과 부르심” 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은 환상이고 그 다음 그의 부르심은 2장과 3장에 있습니다. 4-24장, “예루살렘에 심판을 내리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예언하고 정당화하는 메시지.” 이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기원전 586년 심판의 절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25-32장, “이방 민족에 대한 예언” . 나는 나중에 그것에 대해, 사물의 연대기에 맞는

방식으로 몇 가지 논평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초점을 두지 않고 25-32장에서 이방 나라들에 대해 예언하는 것으로 전환합니다. 그 다음 33-48장은 “이스라엘의 장래 회복에 관한 예언”입니다. 그는 즉각적인 미래와 임박한 심판을 바라보는 대신, 그 심판이 실현된 후의 더 먼 미래로 눈을 돌려 미래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이 책에 나오는 4가지 기본 유형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A. , “소개 발언”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B. 심판과 회복: 에스겔 1-24장 전체개요      B. 는 “1-24장 전체개요”입니다. 1~24까지는 별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1-24장은 실제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3장의 환상과 부르심, 그리고 4-24장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메시지에서 에스겔이 말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의 확실성을 상징적인 행동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실제 예루살렘 포위 공격이 언제 시작되는지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24장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부분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날짜 곧 이 날짜를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을

에워쌌느니라 .’” 그리고 열왕기하 25장 1-2절에 보면, “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십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온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쳐들어왔다. 그는 도시 외곽에 진을 치고 그 주변에 포위 공격 시설을 세웠습니다. 그 성읍은 시드기야 왕 제십일년까지 포위되었더라 .” 그러나 실제 예루살렘 포위 공격이 시작되자 에스겔은 메시지를 바꿉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그 사람들의 사악함을 비난하시지 않고 “내가 말했잖아. 너는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게 될 거야” 라거나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는 외국에 대한 예언으로 전환합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멸망당하는 기간 동안 에스겔의 메시지는 달라집니다. 그가 계속해서 말했던 것이 이제 실현되고 있으며 이제 그는 다른 것으로 이동합니다. 에스겔은 25-32장에서 이방 나라들을 향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사자가 와서 그 성이 실제로 함락되었음을 알렸을 때 에스겔 33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읽게 됩니다. “ 우리가 포로로 잡혀 간 지 십이 년째 되는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사람이 내게 와서 그리고는 ‘도시가 무너졌다!’ ” 에스겔서 33장 21절입니다 . 다시 한번 그의 메시지가 전환됩니다. 33장부터 48장까지는 이제 미래에 초점을 맞춥니다. 심판이 이르렀고 이제 그는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따라서 책의 구조와 메시지의 초점 사이에는 특정한 관계가 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연대기와 일어나고 있는 일의 역사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책의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에스겔 33장 2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녁에 그 사람이 내게 오기 전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아침에 그 사람이 내게로 오기 전에. 그리하여 내 입이 열리고 내가 더 이상 잠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3장 2절 6절에는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이게 하리니 네가 잠잠하여 그 패역한 족속일지라도 능히 책망하지 못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읽혀집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정확히 아는 것은 어려운 말입니다. 나는 주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가지고 그에게 오실 때 외에는 그가 말을 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3장과 24장 사이의 메시지만 전달된 것으로 보이지만 아마도 그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이 완료될 때까지 달리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NIV 연구 성경 노트에는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의 침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를 완강히 거부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 상태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에야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 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490일 동안 매일 한 시간 정도 옆으로 누워 있어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하루 종일 거기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기간 동안 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가 1일차, 2일차, 3일차 신호를 받았을 수도 있다는 징후를 제시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그는 더 짧은 시간에 여러 날을 보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가 실제로 490일 연속으로 하루 종일 옆으로 누워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은 것 같지만, 어쩌면 그가 490일 동안 매일 일정 시간만 누워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에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은 외국 국가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 시드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십일에 ” 열왕기하 25장 1절입니다 . 그는 도시 외곽에 진을 치고 그 주변에 포위 공격 시설을 세웠습니다. 그 성은 시드기야 왕 제십일년까지 포위되었습니다 . 넷째 달 구일에 성중 에 기근이 심하여 백성이 먹을 양식이 없더라 ” 기타 등등. 따라서 시드기야 제9년부터 제11년까지 2년간의 포위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 C. 외국에 대한 심판 - 에스겔 25-32장 티레 에 대한 예언

에스겔서 25-32장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구절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외국인에 대한 재판” 의 이 부분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예언이 있습니다 . 제가 여러분과 함께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26장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장, 적어도 처음 14절을 읽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에스겔 26장: “ 두로 에 대한 예언 ” 입니다. “ 제십일년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 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열국으로 통하는 문이 깨졌고 그 문들이 내게 활짝 열렸으니 이제 그가 황폐하게 되었으니 내가 형통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며 바다 가 그 파도를 일으키듯 많은 나라를 시켜 너를 치게 하리라 그들은 두로 의 성벽을 무너뜨리고 그 망대들을 무너뜨릴 것이다. 나는 그 잔해를 굶어내어 맨바위로 만들 것이다. 바다에 그물 치는 곳이 되리라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와 말이니라 그 여자는 나라들의 약탈물이 될 것이며, 본토에 있는 그 정착지는 칼에 의해 황폐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북에서 만왕의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을 두로 로 쳐서 말과 병거와 마병과 대군을 거느리게 하리니 그는 칼로 본토에 있는 너희 정착촌을 황폐화시킬 것이다. 그는 너를 대적하기 위한 포위 공격을 준비하고 네 성벽까지 경사로를 쌓고 너를 대적하여 방패를 세울 것이다. 그는

공성퇴를 네 성벽에 직접 타격할 것이며 그의 무기로 네 탑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의 말들이 너무 많아서 당신을 먼지로 덮을 것입니다.

사람이 성벽이 무너진 성읍으로 들어갈 때 그가 네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말과 수레와 병거의 소리로 말미암아 네 성벽이 진동할 것이며 그의 말발굽이 네 모든 거리를 짓밟을 것이다. 그가 칼로 네 백성을 죽이리니 네 견고한 기둥이 땅에 무너지리라. 그들은 네 재물을 약탈하고 네 상품을 약탈할 것이다. 그들은 네 성벽을 헐고 네 아름다운 집을 헐며 네 돌과 재목과 잔해를 바다에 던질 것이며 내가 네 시끄러운 노래를 그치게 하리니 네 수금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맨바위로 만들어서 그물을 치는 곳이 되게 하겠다. 너희는 영원히 재건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이러한 예언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타이어 . 몇 년 전 무디 사이언스 필름(Moody Science Film) 조직은 티레 의 예언에 관한 영화를 제작했고, 그것을 성경의 예언/성취 주제에 대한 일종의 변증적 논증으로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사물에 대해 미리 말씀하실 때 그분의 존재와 진실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성취되기 위해 장기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놀라운 방법으로 명백히 성취된 예언의 예로 자주 인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을 정확히 반대의 의미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에스겔이 여기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한 것이 명백히 거짓이라는 주장에 근거한 구약 예언의 신뢰성이 낮다는 예입니다. 역사적으로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방금 전한 자료 인 50 페이지 를 보시면 Gordon Oxtoby의 *성경 예측과 성취*, 79 페이지와 80페이지 에 항목이 있습니다 . 그가 말하는 것을 주목해 보십시오. . 에스겔 자신도 이것이 사실임을 깨달았고, 따라서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군대를 두로 에 대항하여 열심히 일하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새로운 예측을 내렸습니다 .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어깨는 벗겨졌습니다. 그와 그의 군대는 Type 으로부터 그가 수행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애굽 땅을 느부갓네살에게 주리라. 그리고 그는 그의 재물과 전리품과 약탈물을 가져갈 것이며 그것이 그의 군대의 샅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에스겔서 29:18과 19입니다. 그런 다음 Oxtoby는 말합니다. 유형의 포위 공격은 585년부터 572년까지 약 13년 동안 지속되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티레 의 일부는 해안에서 0.5마일 떨어진 섬에 있었고 현재는 모래 침으로 본토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티레 사람들은 적을

막을 수 있었고 결국 느부갓네살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는 정복되거나 파괴되지 않았으며, 에스겔이 이전에 예언한 대로 결코 재건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옥스토비가 맞나요? 이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보세요, Oxtoby는 에스겔이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최종적으로 멸망시킬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 실수라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그 포위 공격이 성공하지 못했고 그가 도시를 파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티레 사람들은 결국 느부갓네살과 타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시는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정복되거나 멸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렇습니다. 에스겔은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최종 멸망시킬 것이라고 말했 습니까

?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눈에 띄는 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26장 12절에서 14절에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들이 네 재물을 노략하며 네 상품을 약탈할 것이라. 그들은 네 성벽을 헐고 네 아름다운 집을 헐며 네 돌과 재목과 잔해를 바다에 던질 것이며 내가 네 시끄러운 노래를 그치게 하리니 네 수금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맨바위로 만들어서 그물을 치는 곳이 되게 하겠다. 너희는 영원히 재건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와의 말이니라 ” 14절, “ 내가 너로 맨바위가 되게 하고 네가 그물 치는 곳이 되게 하리라. 당신은 결코 재건되지 않을 것입니다 .”

느부갓네살은 12절과 14절의 일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품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그는 12 절 후반부에서처럼 성의 잔해를 물에 버리지 않았습니다 . 너희 성벽을 헐고 너희 아름다운 집을 헐며 너희 돌과 목재와 잔해를 바다에 던지라 .”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4절: 그는 그 성을 다시 건축할 수 없는 바위 꼭대기와 같이 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Oxtoby가 한 일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텍스트를 잘못 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소개된 3절로 돌아가면 , “ 주 여호와와의 말씀에 두로야 내가 너를 대적하여 바다 가 그 파도를 치는 것 같이 많은 나라를 오게 하여 너를 치게 하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4절은 “ 그들이 두로 성벽을 헐며 그 망대들을 무너뜨릴 것이며 ”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나라는 많습니다. 따라서 사실 느부갓네살이 그런 짓을 했다면 3절과 4절은 틀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많은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예언에서 일어나는 일은 에스겔이 7절부터 느부갓네살을 두로에 대한 연속적인 공격의 일부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그가 말하는 “내가 느부갓네살 을 두로로 오게 하리라 ”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명사는 복수형 “they ” 에서 세 번째 남성 단수형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8절에 “그가 들에서 칼로 네 딸들을 죽이리라” 고 했습니다. 그분께서 너를 대항하여 요새를 쌓으시고 포위용 산을 세우실 것이다.” 느부갓네살은 티레 를 포위 공격했습니다 . “그가 네 성벽에 전쟁의 기계를 놓을 것임이니라.” 그리고 11절에 “그가 칼로 네 백성을 죽이리니 네 강한 수비대가 땅에 엎드러지리라” 고 했습니다. 따라서 7절부터 11절까지는 세 번째 남성 단수형이 나오지만 12절에서는 다시 복수형으로 전환됩니다. 12에서는 “그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있는 것처럼 12절에서도 복수 대명사가 사용됩니다: “많은 나라들이 성벽을 헐리라.” 12 절 , “ 그들이 네 재물을 노략하며 네 상품을 노략하리라. 그래서 저는 느부갓네살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 12 절부터 14절의 예언을 보면 느부갓네살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역사적으로 티레 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는 것이 오히려 흥미로운 곳입니다 .

3절과 4절은 많은 나라들을 “그들” 로 말하고, 7절부터 11 절까지는 느부갓네살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12절에서는 다시 “많은 나라” 즉 “그들” 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를 보면 “그들” 로 돌아가는데, 특히 1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 그들이 너희 성벽을 헐며 너희 아름다운 집을 헐며 너희 돌과 재목과 잔해를 바다에 던지리라” 고 했습니다. , ” 역사적으로 알렉산더 대왕이 티레를 포위했을 때 기원전 332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음이 분명합니다 . 두로는 본토 도시와 본토 밖의 섬 도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본토 도시의 성벽을 헐고 많은 주민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해안에 있는 그 섬 도시로 도망갔습니다. 그가 섬 도시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두로를 공격했을 때 그 섬 도시는 여전히 번성하는 항구였지만 본토 도시는 대부분 폐허였습니다. 그러나 섬 도시는 번성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다음과 같은 다소 이상한 예언을 듣게 됩니다.

“그들이 네 돌과 재목과 흙을 물 가운데 놓을 것이요.”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인용문 49페이지를 보세요. 제임스 프리 (James Free)의 *고고학과 성경사(Archaeology and Bible History)* 에는 다음과 같은 몇 단락이 있습니다 . “ 에스겔은 ’ 그들이 네 돌과 재목과 흙을 물 가운데 놓을 것이며 두로가 바위 꼭대기처럼 될 것이며, 그물을 펼칠 수 있는 장소로만 유용합니다.’ 도시의 쓸모없는 유적을 가져다가 물 가운데 두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확실히 인력은 그보다 더

유용한 작업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티레

그러나 그 성취는 알렉산더가 티레 에 대항한 캠페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 알렉산더가 처음 티레 (Tyre) 라는 섬 도시에 접근했을 때 항복하려는 의지가 있었지만 도시에 들어가 멜카르트 (Melkart ) 신의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허가를 요구했을 때 거절당했습니다. 티레 시민들은 마케도니아와 페르시아 사이의 분쟁에서 중립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이유로 그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도시를 포위하기 시작했고 도시를 점령하기 전에 7개월 동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레바논 산맥의 삼나무를 더미로 사용하고 옛 육지 도시의 잔해를 두더지의 재료로 사용하여 육교, 즉 두더지를 건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물이 더 깊어질수록 일꾼들의 어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그들은 또한 좋은 해군을 보유한 두로 사람들에 의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방해받았습니다 . 이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알렉산더는 두더지 건설을 군대 엔지니어에게 맡기고 북쪽으로 가서 시리아 해안의 선박, 아라부스 및 비블로스 선박을 수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를 자신의 처분에 맡긴 Arabus 와 Byblos 의 왕에게갔습니다 . 그는 키프로스 섬에서 120척의

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시돈에서는 약 80척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약 220척의 군함 함대를 보유한 알렉산더는 규모는 크지만 작은 티레아 함대에 비해 압도적이었습니다. 7개월 후에 그 두더지는 섬 도시 티레의 성벽으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 기원전 332년 8월 두더지로부터 성벽이 무너졌고 티레 함대의 일부가 침몰했습니다. 도시를 함락시키면서 수천 명의 주민이 노예 시장에 팔렸는데, 아리우스에 따르면 그 수는 13,000명이었습니다. Diodorus 에 따르면 30,000 . 돌과 목재와 흙을 물 속에 놓는 것에 관한 에스겔의 예언은 알렉산더의 기술자들이 두더지를 만들고 고대 육지 도시 티레의 유적을 사용하여 물 속에 놓을 때 구체적으로 성취 되었습니다 . ”

그래서 12절 끝 부분에서 알렉산더 시대에 놀라운 성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13절과 14절은 그 시점 에서도 실제로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네 하프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맨바위로 만들어서 그물을 치는 곳이 되게 하겠다. 너희는 영원히 재건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 알렉산더 시대에 두로 도시를 정복하고 섬 도시를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로 도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 본토 도시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그 일부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알렉산더는 섬 도시를 거의 파괴했지만, 본토 도시 자리에는

여전히 남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셀레우코스 치하에서 그것은 회복되었고 로마인 치하에서도 계속 존재했으며 심지어 무슬림의 지배와 십자군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1292년 사라센족에 의해 마침내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은 1292년경 그곳의 중세 초기에 아랍 무슬림이었습니다. 그 타격에서 결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오늘날까지 비어 있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페이지 하단 48페이지를 보십시오. 불행하게도 여기의 첫 번째 문장은 타이핑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티레 에 관한 기사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 그 인용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도시는 기원전 198년경에 셀레우코스 왕조 의 지배하에 연속적으로 지나갔고 , 기원전 68년에 로마인들은 티로 와 시돈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 (마태 15:21-28 및 마가 7:24-31.)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동안 배가 그의 집을 내리는 동안(사도 21:3-7)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두로 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 로마 시대에 이 도시는 비단과 명주 의류 제조뿐만 아니라 천재 무렉스의 달팽이에서 추출한 티리안 보라색으로도 유명했습니다. AD 2세기에 티레는 주교의 바다가 되었습니다. 학자 오리겐은 254년경 그곳에 묻혔습니다.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는 서기 323년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 설교를

했습니다. 638년에 이 도시는 이슬람교도들에게 함락되었습니다. 1124년 십자군에 의해 점령되었습니다. 신성 로마 황제 프리드리히 1세 바르바로사는 1190년에 익사하여 십자군의 대성당에 묻혔습니다. 1291년에 이슬람교도들이 도시를 탈환하고 파괴했으며, 이것이 1291년 티레시의 종말입니다. ” 그러므로 여러분은 3절과 4절에서 시작되는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나라가 너희를 치러 올라오리라. 그들은 두로를 멸망시킬 것입니다 .” 13절과 14절에서는 궁극적으로, 수금 소리를 그쳐서 바위 꼭대기처럼 만들어 다시는 사람이 살지 않게 할 자들도 바로 “그들” 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느부갓네살, 알렉산더, 로마인, 무슬림, 십자군이 마침내 멸망될 때까지 계속해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닙니다.

### 시돈의 멸망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두로 에 대한 예언과 대조적으로 , 두로의 자매 도시인 시돈에 대한 예언을 보십시오 . 그것은 28장 21절 이하에 있습니다. “ 인자야, 네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라.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와 말씀에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고 네 안에서 영광을 얻으리라 내가 그에게 벌을 내리고 그

안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어 그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라. 살해당한 자들이 그 안에서 쓰러질 것이며 사방에서 칼이 그녀를 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 시돈은 두로의 자매 도시이다 . 두로 에 대한 예언에서는 그 도시가 완전히 멸망되어 다시는 재건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지만, 시돈의 경우에는 그 거리에 무단 거주자가 있을 것이라고 에스겔은 말합니다. 그는 시돈이 멸절되어 다시는 재건되지 못할 도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거리에는 피가 흘렀을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늘날 페니키아(또는 레바논) 해안에 가면 시돈이 여전히 사람이 거주하는 지역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돈은 인구 5만 명으로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곳이에요. 두로 에는 비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것이 성경 계시의 하나님의 존재와 진실성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언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

크리스타 코너스(Christa Coners) 가 각본을 맡았습니다.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가 다시 해설함